



민주당 당무위, 광주 5곳 후보 무더기 '인준 보류'

총선 D-34

동남갑·동남을·북구갑·북구을·광산을 등 대상
선관위, 정준호 고발·검찰 압수수색 등 여파
조오섭 "불공정 경선...뒤바뀐 억울함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가 광주지역 5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공천 인준을 보류했다. 이 같은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현재 광주 북구갑 선거구 정준호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영향을 미쳤

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3·4면 민주당은 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진행됐던 선거구별 공천 결과를 바탕으로 인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무위원회는 담양·함평·영광·장성(이개호)을 비롯해 타 지역의 경우 그동안의 경선 결과 등에 따른 공

천자를 모두 인준했으나 광주의 경우는 경선이 완료된 5개 선거구에 대한 인준을 모두 보류했다. 당무위에서 공천 인준이 보류된 광주의 선거구는 ▲광주 동남갑 ▲광주 동남을 ▲광주 북구갑 ▲광주 북구을 ▲광주 광산을 등 5곳이다. 이는 현재 경선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서구갑 ▲광주 서구을 ▲광주 광산갑을 제외한 5곳을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이들 5개 선거구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은 광주 북구갑에서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정준호 예비후보가 최근 광주시 북구선거

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됨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 북구갑 경선에서 승리한 정준호 변호사 측이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예비후보 측이 경선 기간 대학생 20명에게 일당 10만원 씩을 주기로 하고 전화 홍보방을 운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단순히 후보 간 고소·고발이 아니라 선관위의 고발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광주 북구갑 뿐만 아니라 현재 각종 불법·탈법 선거운동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의 5개 선거구 모두를 다시 정밀하게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광주 북구갑 뿐만 아니라 광주의 다른 선거구에서도 동일한 불법·탈법 문제로 경선 후보자 간 갈등이 큰 상황"이라며 "단순히 검찰 조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불법·탈법이 있었다면 당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관위 고발이 이뤄진 광주 북구갑의 경우 후보자 교체와 같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경선 상대자였던 조오섭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이나 제3의 인물과의 재경선 등 광주 민심을 추스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를 떠나 검찰에 의해 후보 사무실 및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며 "불법 선거운동과 불공정 경선으로 만들어진 불공정 결과는 결코 아무 것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어 조 의원은 "불법 선거운동의 결과로 10%의 청년 가산점을 적용받아 1%대의 차이로 경선 1위를 탈취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며 "불공정 경선의 결과로 뒤바뀐 1위를 바로잡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봄이 온 캠퍼스...동아리 모집 열기 포근한 날씨를 보인 6일 오전 전남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총동아리연합회' 동아리 모집 행사가 재학생들의 신입생 모집 열기로 불타고 있다. 동아리에 대한 관심과 구성원과의 소통·화합을 위한 '동아리 알릴라이' 행사는 교내 5·18민주광장에서 7일까지 진행된다. /김영민 기자

檢, '불법 전화홍보방' 의혹 정준호 압수수색

선관위, '홍보원 일당 10만원씩 지급' 고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선거구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준호 예비후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욱 부장검사)는 이날 정준호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20여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준호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현재까지 정준호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대면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21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결과, 정준호 예비후보가 현역인 조오섭 국회의원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조 의원은 정준호 예비후보가 전화 홍보원에게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등의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또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홍보 문구에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라고 명시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등을 주장했다. 경선 투표 기간 휴대전화 착신전환을 통해 대리 투표를 시도한 의혹도 제기했다. /안재영 기자

소득 없이 끝난 중앙공원1지구 공개토론

한양·빛고을SPC, 새로운 논의없이 일방 주장만 되풀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개발 관련 공개토론회가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좌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한양과 빛고을SPC가 그동안의 공방, 사업 주체 지위만 서로 주장하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6면 광주시는 6일 오후 4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주한양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총사업비 산출 적정 여부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규 광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 유창호 전남대 산학협력단 박사, 박성민(주한양 전무, 이재현 빛고을SPC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개토론회는 한양이 지난 4일 광주시와 빛고을SPC가 의뢰한 타당성 검증에서 선분양 전환 시 33㎡ 당 2천425만원(2천772세대 기준)의 분양가가 도출

된 것은 특정 사업자 이익 보장을 위한 '광주시 속임수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를 33㎡(평)당 1천900만원에 선분양할 수 있다"고 제안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광주시는 이날 총 110분의 공개토론회 중 ▲과다 책정된 금액 정상화 ▲분양형 개선 ▲사업자 이익 축소 ▲추가 토론에 각 20분씩 배정, 토론만 총 80분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성민 한양 전무는 모두 발언을 통해 "공모에서 한양 컨소시엄의 대표로 사업권을 획득했고, 권리의무가 SPC에 승계된다는 전제 하에 SPC를 구성, 대표 주관사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제안해왔다"며 개발 주체 대표 자격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어 박 전무는 "시의회, 시민, 전문 기집단, 시민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든 자료를 제공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후분양이 적절하지, 선분양이 2천425만원이 적절하지 검토해야 하는데 한양이 1천900만원을 제안한 것을 마녀사냥하듯 공개 토론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이런) 토론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빛고을SPC 대표 역시 "공식 행정절차를 거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라는 회사가 지정돼 구성 업체들이 주주가 됐고 이사회, 대표이사"라며 "대표 주관사라고 주장하면서 (SPC가) 비용을 빼돌리고 있다. 광주시가 밀실에서 속임수 행정한다고 주장하는 주체가 한양"이라고 한양에 각을 세웠다. 결국 이날 공개토론회는 양 사업자가 그동안 소송 등에서 반복해온 공방만 되풀이했으며 사실상 30여분만에 종료됐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사업은 한 치의 의혹 없이 모두가 공감하도록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단, 속임수 행정을 한다는 모욕적인 표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성강 기자

전공의 이탈 장기화...전대병원 2개 병동 폐쇄

전남대병원이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일부 병동을 폐쇄했다. 6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기존 환자들의 조기 퇴원 및 전원 조치와 함께 응급·중증환자만 입원 조치하고 있다. 이에 빈 병실이 늘어나 8동 11층과 1동 6B 병동 등 2곳을 폐쇄했다. 병원 측은 운영이 중단된 병동 간호사 등 의료진을 전공의와 전임의 공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응급·중증환자

실과 심혈관내과 등 필수 의료과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전남대병원도 전공의 공백으로 평소 대비 수술은 40~50%, 병상 가동률은 50% 가량 각각 줄었으나 현재까지 병동 통폐합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현 인력 여건상 응급·중증환자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진을 꼭 필요한 진료과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조선대병원 전공의들은 지난달 20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 집단 사직했으며 이날 기준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는 전남대병원(분원 포함) 160여명, 조선대병원 100여명으로 집계됐다. /기수희 기자

Today
제3지대 신당 지지율 1위는? 4면
광주행 열차 '부정승차' 매년 늘어 6면
신선식품 물가 3년만에 최고치 12면

화순군 문화관광
http://www.hwasun.go.kr/culture
문의전화 061) 379-3575-7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선사시대로 떠나는 봄소풍

2024. 4. 19.(금) - 4. 28.(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